

中企 수출유망품목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혈압측정기〉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독일 / 2

II. 스웨덴 / 5

III. 핀란드 / 7

IV. 폴란드 / 10

V. 불가리아 / 19

VI. 미국 / 24

VII. 파나마 / 31

VIII. 중국 / 36

IX. 태국 / 43

요 약

- 혈압측정기(HS Code : 901819) 시장은 인구 고령화와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이다.
- 본 보고서에서는 혈압측정기 유망시장인 미국, 독일, 중국 등 9개국에 대해 시장동향, 유통구조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장구조, 바이어 의견 등을 조사하여, 한국 제품의 판매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작성되었다.
- 혈압측정기는 의료기기라는 인식이 강해, 9개 조사대상국가에서 모두에서 신뢰도가 높은 미국, 독일 브랜드가 인기다. 이들 브랜드 제품은 자국에서도 생산되지만, 중국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OEM으로 생산, 수출하는 규모도 크다. 아쉽게도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이들 국가의 대한 수입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 특별한 수입 제한 정책은 없으나, CE(유럽 국가), FDA/FCC(미국), SFDA(중국) 등 각국 정부가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선결과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제품에 대해 해외 바이어들은 미국, 독일 등의 제품에 비해 브랜드 밸류가 낮고, 중국 제품에 비해서는 가격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지 판매망이 잘 갖춰진 에이전트 또는 수입업체를 발굴하거나, 유명 브랜드 업체의 OEM 납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 독 일

1 시장 동향

□ 품목 유망성

- 남성인구의 51%, 여성인구의 44%가 고혈압 환자로 주기적인 혈압측정 수요 다대
 - 35세 ~65세 사이 고혈압 환자 비율은 55%로 타 연령대비 가장 높음.
- 팔목형(17%)보다 팔뚝형(83%) 제품 선호 ('11.3월 판매기준)

□ 수입동향

- 현지 수입 규모는 '11년 기준 약 4.4억 달러이며 '09년 이후 성장세
- 국별로는 미국으로부터 전체 수입의 43%를 수입
 - 대한 수입은 '11년 기준 500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

<독일 혈압측정기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명	'09	'10	'11
1	미국	183	209	189
2	네덜란드	31	35	76
3	일본	21	31	26
4	싱가포르	18	20	20
5	이스라엘	13	13	20
13	한국	2	3	5
-	기타	111	104	100
-	총계	379	415	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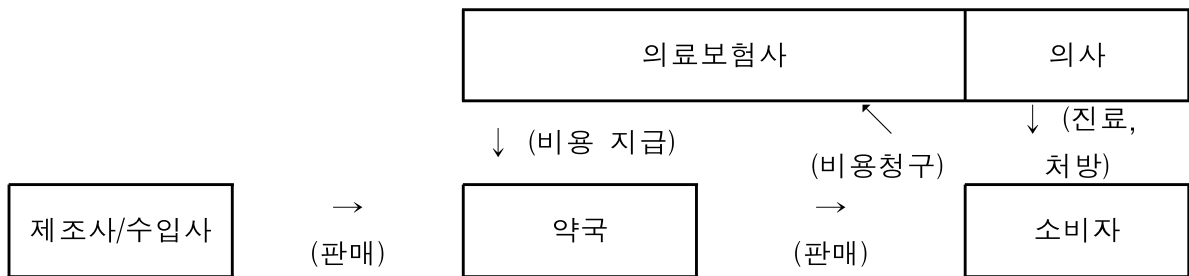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2 시장 구조

□ 주요 유통경로

- 약국(온라인 판매 포함) 통한 판매(77%)가 보편적

< 약국을 통한 판매 >



자료원 : 무역관 자체조사

- 약국 외에도, 체인형 슈퍼마켓 매장인 Aldi(www.aldi.de), Lidl(www.lidl.de), Norma(www.norma-online.de)를 비롯해 DM(www.dm.de)과 같은 체인형 생필품 전문 취급점인 드로게리(Drogerie) 마켓 등 일반 유통경로를 통해서도 판매(23%)

- 슈퍼마켓 체인을 통한 판매의 경우 1년간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2개월간 단기 세일 상품으로 판매

< 일반 유통경로를 통한 판매 >



자료원 : 무역관 자체조사

- 의료보험사에서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측정기 구매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복잡한 행정적 절차와 저가 제품 보급 등으로 소비자(환자)가 의료보험사의 비용 보상 없이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

3

바이어 의견 조사

☐ WERO-MEDICAL

- 기본정보
 - 담당자 : Mr. Keisinger (구매팀)
 - 전화번호 : +49 (0) 6128-9757
 - Email : info@wero.de
 - 홈페이지 : www.wero.de
- 바이어 의견
 - 새로운 공급 기업 발굴에 관심, 한국기업과의 거래 경험 없음.

II. 스웨덴

1 시장 동향

□ 품목 유망성

- 최근 들어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나, 개별적으로 혈압기를 구매하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어 수요 지지

□ 수입동향 및 정책

- (수입동향) '10년 수입이 전년대비 반등했으나, '11년 들어 급감
 - 국별로는 미국으로부터 49%, 독일로부터 21%를 수입
 - 대한 수입은 45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

<스웨덴 혈압측정기 수입 동향>

(단위 : 천 크로나)

순위	국가	'09	'10	'11
-	총계	292,445	302,734	263,932
1	미국	116,977	136,469	129,106
2	독일	84,887	51,900	54,159
3	네덜란드	20,343	33,645	27,736
4	벨기에	11,070	10,973	13,602
5	핀란드	8,763	14,947	8,173
10	한국	5,404	1,710	2,936
-	기타	45,001	53,090	28,220

자료원 : 스웨덴 통계청(www.scb.se) 발송지 기준임

주 : 대미평균환율: 1US\$=6.49SEK('11), 7.20SEK('10), 7.64SEK('09)

- (수입정책) 특별한 수입정책은 없으나, CE마크는 반드시 획득 필요

* 관세율 0%, 부가가치세 25% 적용

2 시장 구조

□ 유통채널

○ 유통업체

- 스웨덴에서 혈압계를 취급하는 업체는 크게 의료기기 전문업체와 일반 수입상으로 구분
- 의료기기 전문 업체(Abbott Scandinavia AB, Medtronic AB, Scanex Medical Systems AB사, Svenska Labex AB, Intramedic AB사 등)는 자사의 스웨덴 지사나 에이전트를 통해 제품을 유통
- 일반 수입상으로 혈압계를 취급하는 업체는 OBH Nordica AB, El-Giganten 등 전자제품 전문 유통업체가 있음.
- 스웨덴의 의료기관은 국가 소유의 국영기업체로 모든 의약품과 장비를 공공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대형 유통업체가 지배

○ 경쟁현황

- 현재 스웨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혈압계는 주로 미국과 독일, 벨기에, 핀란드 등 유럽산 제품과 일본제품이 주도
- 최근 들어 한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도 OEM으로 상당량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참고사항 : 가정용 혈압계에는 의료보험 수가 미적용

Ⅲ. 핀란드

1 시장 동향

□ 품목 유망성

- 인구고령화가 현격히 진행되고 있고, 고지방·콜레스테롤 음식 섭취가 만연하여 심혈관계 질환이 사망 1순위에 올라, 모니터링 기기에 대한 수요 다대

□ 수입동향 및 정책

- (수입동향) '10년 수입이 급감하였으나, '11년 예년 수준으로 회복
 - 다국적 기업의 OEM 생산으로 베트남,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70%를 차지

<핀란드 혈압측정기 수입 동향>

(단위 : 천 유로)

순위	국가	'09	'10	'11
-	총계	2,589	3,149	3,007
1	베트남	1,080	789	1,162
2	중국	604	1,233	956
3	싱가폴	358	567	297
4	독일	157	204	164
5	미국	124	166	109
11	한국	3	10	3
-	기타	263	180	316

자료원 : 핀란드 관세청

- (수입정책) 특별한 수입정책은 없으나, CE마크는 반드시 획득 필요

* 관세율 0%, 부가가치세 23% 적용

* 핀란드에서 CE 마크와 의료기기의 테스트를 관장하는 기관은 VTT(www.vtt.fi)

· Mr. Markku Helminen, Senior Research scientist(markku.helminen@vtt.f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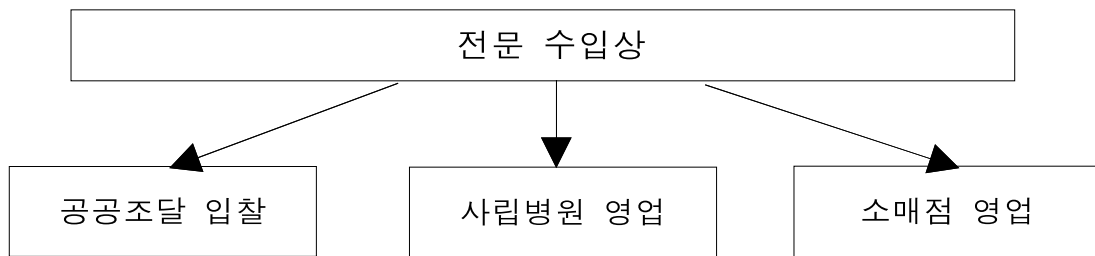
· Mr. Kaarle Kylmä, Group Manager(kaarle.kylmala@vtt.fi)

2 시장 구조

□ 유통구조 분석

- 사실상 소수의 의료기기 전문 수입업체를 통해서만 현지 진출 가능(과점 시장)

<전문 수입상을 통한 유통경로>



* 백화점, 의료기기 전문업체 대상 영업도 수입업체를 통해 이뤄짐.

< 주요 의료기기 전문 수입업체 및 매출액 >

회사명	전체 매출액 (백만 유로)	배급 제품 회사명
Berner	€227	Omron(일본)
Orion Diagnostica	€38	AND Medical(호주)
Instru optiikka	€109	Microlife Europe(스위스)
Tamro	€116	Welch Ally (미국)

□ 대상 공략군 분석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력한 수입업체와 에이전트 계약을 하는 것이 시장 공략의 첫 번째 지름길

3 바이어 의견 조사

□ 시장진출 5계명

- 제품 신뢰성, 물량의 유연성, 효과적인 물류 대응
- 현지 시장 마케팅 캠페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핀란드 및 발트3국/노르딕 시장에 대한 배급 독점권
- 합리적인 가격
- CE 마크 받드시 구비

□ 한국제품 평가 및 개선 희망사항

- 핀란드 수입업체들은 한국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모두 만족
 - 한국산은 유명 브랜드의 복제품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가격대비 성능이 좋아 큰 불만은 없음.
-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 비용 적절히 편성 필요
 - 수입업체들은 한국 업체에게 마케팅 비용을 분담하기를 요구하나 대부분의 한국 업체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수출이 무산되는 경우 빈번

* 접촉 바이어 명단

업체명	담당자(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Mediq Suomi	Mr. Ilari Vaalavirta Managing Director	+358 20 112 1600	ilari.vaalavirta@mediq.com
Pedihealth	Mr. Seppo Similä Medical Director	+358 207 401 330	seppo.simila@pedihealth.fi
Tamro MedLab	Mr. Markku Perko Marketing Manager	+358 20 445 11	markku.perko@tamro.com

□ 참고사항

- 의사 처방으로 혈압측정기 구매시, 의료보험 적용가능(그렇지 않은 경우엔 본인 부담 구매)

IV. 폴란드

1 시장동향

□ 품목 유망성

- 폴란드는 전체 사망자 중 약 48%가 심장-순환계 질환으로 사망하여, 혈압관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
 - 약국, 공공장소 등에 유료 혹은 무료 혈압측정기를 비치하는 경우가 증가
- 병원이나 의료진들의 경우 아직 재래식 혈압계를 많이 쓰이고 있으나, 가정용에서는 비전문가도 쉽게 측정이 가능한 전자식 혈압계가 널리 유통
- 서유럽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나, ① 로컬제조사가 없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점, ② 저렴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 ③ 중국제품이 가격경쟁력이 있으나 품질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시장

□ 시장규모

- 폴란드 시장규모는 8백만-9백만 달러 수준, 글로벌 경기 침체로 '08년 이후 매년 시장규모가 감소하다가 '11년 들어 회복세로 전환

<폴란드 혈압측정기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09	'10	'11
수출(A)	5.03	5.16	5.40
수입(B)	14.49	11.75	14.65
생산(C)	0	0	0
시장규모(C+B-A)	9.46	6.59	9.25

자료원 : EuroStat

□ 시장진출 장애요소

- 아직까지 인지도가 높은 서유럽 제품을 선호
- 병원 및 의료기관의 경우 모든 의료기기와 용품을 공개입찰로 조달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
- 의료기기 등록 기간이 길고 제품 인지도를 위한 프로모션 기간이 필요하여 초기 진출에 애로
- 최근 전자 혈압계에 대한 기술개발로 쉽고 간편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 많이 등장하여 시장경쟁이 매우 치열

□ 수입동향 및 정책

- 폴란드에는 제조업체가 없어(일부 업체는 해외 OEM 생산), 혈압측정기 전량을 수입
 - 매년 수입규모의 30~40%를 인근 유럽지역으로 채수출
 - * 폴란드가 지리적으로 유럽 중간에 위치, 인근 중동부 유럽에 접근 용이
- (수입동향) '10년 수입이 급감하였으나, '11년 예년 수준인 1,400만 달러대로 회복
 - 국별로는 독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45%로 가장 많고, 네덜란드 15%, 중국 14%가 뒤를 이음.
 - 대한 수입은 5만 달러 수준으로 미미

<폴란드 혈압측정기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09	2010	2011
-	총 계	14.49	11.75	14.65
1	독일	6.65	4.17	6.52
2	네덜란드	2.77	2.24	2.17
3	중국	2.16	1.70	2.03
4	벨기에	0.94	1.43	1.00
5	영국	0.89	0.85	0.90
11	한국	0.09	0.01	0.05
-	기타	0.99	1.35	1.98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수입정책) 특별한 수입정책은 없으나, CE마크를 반드시 획득해야 하며, 수입 전 폴란드 의료기기 등록청(The Office for Registration of medicinal Products, Medical Devices & Biocides, www.urpl.gov.pl)에 등록 필수
 - * 관세율 0%,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23%가 적용되나, 의료기기로 등록시 8% 적용
- 폴란드 의료기기 등록청에 등록 할 때는, 반드시 폴란드 내 회사가 동 의료기기의 수입업자로서 공식 디스트리뷰터 자격으로 등록절차를 밟아야하며 이 때, 수입업체는 제품에 대해 제조사와 똑같은 책임을 부여
 - * 담당자 : Ms. Elzbieta Maciejewska, Director of Department(dim@urpl.gov.pl.)
- 만일 EU내 이미 수출을 해왔고 이미 공식 디스트리뷰터를 가지고 있다면, 폴란드 등록청에는 이에 대해 통지(Notification) 절차를 밟으면 됨.

*** 참고사항 : 폴란드 의료기기 등록 구비서류 및 소요비용/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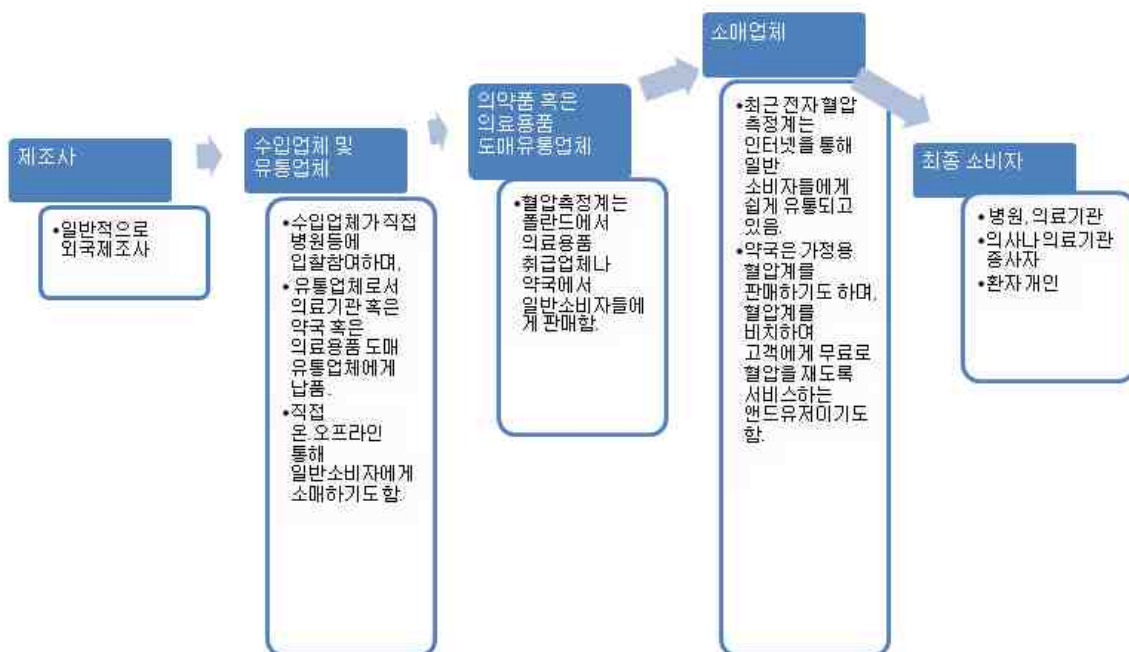
- 필요서류 : 기본적인 서류로는 등록청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 등에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 외에, 등록신청비 지불 영수증, 신청자/업체 본인 법적 지위관련 증빙서류(회사형태 등), 제품인증 증명서(CE 등), 공식 대리점으로서의 계약서 등 증명서류, 제품품질 적합성에 대한 성명서, 제품설명서, 제품사용법 등
- 모든 서류는 폴란드어로 작성 되어져야하며, 번역이 필요한 경우 공증 필수
- 소요 비용 및 기간 : 등록절차를 위한 기본비용은 약 300 PLN(약 USD100)이며, 6-12개월 정도 소요
 - * 통지절차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적게 들 수 있음.

2 시장 구조

□ 유통구조

- 혈압 측정기는 일반적으로 수입업체가 직접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입찰 참여하여 납품하거나 의약품 및 의료기기·용품 도매 유통업체에게 납품
 - * 일부 외국 제조사는 폴란드 내 판매 법인을 두고 시장을 공략 (예 : Paul Hartmann)
- 수입업체가 직접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소매를 하기도 함.
- 소매점으로는 인터넷 판매점, 의료용품 판매점, 약국에서 주로 판매가 되나, 전자 혈압계의 경우 일부는 가전제품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
 - 전자 혈압측정기의 경우 쉽게 측정이 가능해 최근 온라인으로 판매

<폴란드 혈압측정기 유통구조>



자료원 : 무역관 자체조사

□ 유통 단계별 주요 업체

< 의료용품 수입·유통업체 >

업체명	홈페이지	비고
ELMEDICO	www.elmedico.pl	의료용품, 소형장비 도·소매
InterMed	www.intermed.krynica.com.pl	의료용품 수입·유통
OLIMED Olga Hryniewicka	www.olimed.pl/	의료용품 수입·유통
TECH-MED Technika Medyczna B. Wójcik Sp. J.	www.techmed.pl	의료용품 일부 제조, 일부 수입·유통
Diagnosis sp.zo.o	www.diagnosis.pl	의료용품 일부 제조, 일부 수입·유통
Cezal sp.zo.o	www.cezal.pl	의료용품 수입·유통, 판매

< 의약품, 전자·가전 유통업체 >

업체명	홈페이지	비고
Conrad Electronic Sp. z o.o.	www.conrad.pl	컴퓨터, IT, 가전제품 취급 전자 혈압계 취급
HURTAP SA	www.hurtap.com.pl	약국을 대상으로한 대형 의약, 의료용품 전문 디스트리뷰터.
Organizacja Polskich Dystrybutorów Farmaceutycznych S.A.	www.opdf.com.pl	약국을 대상으로한 대형 의약, 의료용품 전문 디스트리뷰터.

□ 대상 공략군 분석

- 의료용품 제조사로서 자체 브랜드 취급을 희망하는 업체나 전문 의료용품 수입업체가 공략에 적합
- 약국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 디스트리뷰터를 공략해 볼 만하나, 크고 수많은 종류의 의약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혈압계 한 품목에 대한 수입에 관심이 미미할 우려

3

바이어 의견

□ 주요 경쟁사/브랜드별 소비자 가격

○ BOSO BOSCH+SOHN (독일)

제품사진	제품특성	소비자 가격 (VAT 8% 포함, 1PLN=약 350원)
	Producer : BOSO (독일) 의사용, 전통식 오차범위: +/- 3 mm Hg	159 PLN
	Producer : BOSO 가정용, 전자식, 2인용 Model : Medistars Family 사이즈: 22-42 cm 전지 : 4xAA	289 PLN
	Producer : BOSO 가정용, 전자식, 반자동 Model : Medistars Smart 사이즈: 22-32 cm 전지: 1xAA	145 PLN
	Producer : BOSO 가정용, 전자식 Model : Medistar Smart 사이즈: 13.5 - 19.5cm 전지: 2 x LR03 무게 : 150	139 PLN

* 제품 브랜드 인지도가 높으며, 품질 보증기간 36개월

○ ACCOSON (영국)

제품사진	제품특성	소비자 가격 (VAT 8% 포함)
	Producer : ACCOSON (영국) 의사용, 전통식 오차범위: ± 3 mm Hg	679 PLN
	Producer : ACCOSON (영국) 의사용, 전통식 오차범위: ± 3 mm Hg	139 PLN

* 유럽에서 100년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품질보증기간 12개월

○ OMRON (일본)

제품사진	제품특성	소비자 가격 (VAT 8% 포함)
	Producer : OMRON 전자식, 자동 Model : Omron M6	299 PLN
	Producer : OMRON 전자식, 자동 Model : OMRON M10-IT	399 PLN

* 최근 인기가 높아진 상품으로, 36개월 품질보증

○ HARTMANN (독일)

제품사진	제품특성	소비자 가격 (VAT 8% 포함)
	Producer : HARTMANN 전자식, 자동 Model : Hartmann Tensoval Comfort Automat	154 PLN
	Producer : HARTMANN 전자식, 자동 Model : Hartmann Tensoval Comfort Duo control	300 PLN

* 유럽 내 전통 있는 브랜드로 36개월 품질보증

○ 기타 : TechMed, Riester, ERKA, Microlife, Beurer, Braun, Panasonic, HUM, HWG, MEDISANA, Wenzhou, Kawe 등

제품사진	제품특성	소비자 가격 (VAT 8% 포함)
	Producer : PANASONIC 전자식, 자동 Model : EW 3152	400-600 PLN
	Producer : BRAUN 전자식, 자동 Model : Braun BP 1600	100-160 PLN
	Producer : BEURER 전자식, 자동 Model : BEURER BC 19	135-320 PLN
	Producer : TechMed 전자식, 자동 Model : TMA -10 PRO	169 PLN

□ 바이어 의견

1	"ZARYS" Sp. z o.o.		
대표자	Mr. Adam Janiszewski	직위	CEO
담당자	Ms. Anna Zabkiewicz	직위	Import Manager
Tel	(+48 32) 376 07 29	Fax	(+48 32) 376 06 91
Email	anna_zabkiewicz@zarys.com.pl		
설립년도	1989	종업원 수	
Website	www.zarys.com.pl		
주소	ul. Pod Borem 18, 41-808 Zabrze Poland		
업종	수입, 유통		
취급품목	Medical equipment and products		
한국과의 거래경험	있음	구사 언어	폴란드어, 영어
바이어 참고사항	· 의료용품, 장비, 기기 전문 유통업체 · 폴란드 남서부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급하며, 수입.도매.소매를 겸함.		
인터뷰 결과	· 한국과 거래경험이 있으며, 한국제품에 대해 좋은 견해를 가지고 있음. 한국 출장 경험도 있음. · 혈압계의 경우 의료보험 수가 적용되지 않음.		

2	TECH-MED / Technika medyczna B. Wojcik sp.J.		
대표자	Mr. Piotr Wojcik	직위	General Manager
담당자	Mr. Artur Szymanek	직위	Technical Manager
Tel	(+48 22) 654 64 93	Fax	(+48 22) 620 77 42
Email	aszzymanek@techmed.pl		
설립년도	1949	종업원 수	12
Website	www.techmed.pl		
주소	ul. Chmielna 98 (róg Al. Jana Pawła II) 00-801 Warszawa Poland		
업종	제조, 수입, 유통		
취급품목	Medical equipment and products		
한국과의 거래경험	있음	구사 언어	폴란드어, 영어
바이어 참고사항	· 의료용품, 장비, 기기 전문 유통업체 · 혈압측정기의 경우 중국 및 한국 등에서 OEM공급을 받아 자체브랜드 TechMed로 폴란드 내 유통		
인터뷰 결과	· 한국과 거래경험이 있음. 한국제품은 중국제품보다는 품질이 좋지만 가격이 높다는 견해 · 혈압계의 경우 의료보험 수가 적용되지 않음.		

V. 불가리아

1 시장 동향

□ 품목 유망성

- 혈압측정기 시장규모는 300만 달러 수준이나, 수입의존도가 높음.
- 저가인 중국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 독일제품이 고가 시장군을 형성하고 있어 가격대비 품질이 높은 우리제품이 틈새 시장 진출가능

□ 수입동향 및 정책

- (수입동향) '10년 수입이 급감하였으나, '11년 전년대비 9%(239만 달러) 증가하며, 회복세로 전환
 - 국별로는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44%로 가장 많으며, 네덜란드(20%), 독일(11%), 홍콩(10%)이 뒤를 잇고 있음.
 - 대한 수입액은 미미하여 통계에 잡히지 않음.
- (수입정책) CE 인증이 필요하며 국민의료보험 수가 적용 대상은 아님.
 - * 관세율 0%, 부가가치세는 20% 적용

<불가리아 혈압측정기 수입 동향>

(단위 : US\$ 백만)

순위	국가	'09	'10	'11
-	총계	2,553	2,201	2,390
1	중국	685	795	1,045
2	네덜란드	676	415	481
3	독일	416	311	255
4	홍콩	186	130	246
5	일본	2	23	76
-	기타	588	527	287

자료원 : NSI

2 시장 구조

□ 유통구조

- 불가리아 내 혈압측정기 제조사는 없으며 수입업자나 유통상 또는 소매상이 외국브랜드를 수입하여 약국 및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 불가리아 혈압측정기 유통구조 >



- 주요 외국 브랜드
 - 일본 : Omron, Citizen, Sendo, Nissei
 - 미국 : Unimark, Rossmax
 - 독일 : Boso, Hartmann, Geratherm, Visomat, Beurer, Siemens
 - 이탈리아기업 : PIC
 - 기타 브랜드 : Carrera, Elite, Joycare, Lumiscope 등
- 대표적인 수입업자 및 유통상
 - Simel Ltd. : Omron 유통상(authorized distributor)
 - KiB International Ltd. : Omron 공식유통상(official distributor)
 - Marvena Ltd. : Siemens, Visomat 등 수입자
 - Samokontrol Ltd. : Microlife 에이전트
 - Pelikan DTM Ltd. : Citizen 에이전트

○ 약국 및 소매상

- Framar Drug Store : PIC, Sendo, Rossmax, hartmann, Boso, Lumiscope 등 판매
- E-Apteka : 온라인 판매를 하며 Unimark를 취급
- Pharmateos pharmacy chain : 다양한 제품을 취급

□ 대상 공략군 : 현지 에이전트 및 수입업체

3 바이어 의견

□ 수입 수요

- 불가리아 시장은 이미 저가의 중국제품과 고가의 유럽 및 선진국 제품 시장으로 양분되어 있으므로 가격 면에서는 유럽제품보다 저렴해야하며 품질 면에서는 중국보다 나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 CE마크의 획득은 기본이며 현지 에이전트를 두는 방법이 시장진출에 매우 효율적

□ 한국제품에 대한 평가

- 대부분 한국제품 취급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전자식 기기와 같은 고품질,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기대가 높음.

□ 접촉 바이어

- Marvena Ltd.

대표자	Mr. Mario Kapsarev
담당자	Mr. Mario Kapsarev (manager)
전화	+359 2 974 89 67
팩스	+359 2 975 72 43
휴대폰	+359 888 77 22 74 / +359 887 750 194
이메일	mario.kapsarev@marvena.com
설립시기	1998
홈페이지	www.marvena.com
주소	44, St. kiprian Str. 1799, Sofia, Bulgaria
업종	수입 및 유통업
주요 취급제품	의료기기
주요수입국	독일
한국거래 경험 유무	없음. 국내기업과의 협력에 관심표명
의사소통 언어	영어

○ Madara MC Ltd.

대표자	Mr. Zlatomira Dermendjieve (Managing Director)
담당자	Mr. Klimentov (Sales Manager)
전화	+359 2 853 6792
팩스	+359 2 858 6792
휴대폰	+359 898 504 247
이메일	madara.ms@mail.bg
설립시기	-
홈페이지	-
주소	office 1, 24 Bokar, St. 3, Sofia, Bulgaria
업종	무역
주요 취급제품	의료기기
연 매출액	-
주요수입국	-
한국거래 경험 유무	있음
의사소통 언어	영어

○ Elta 90 Ltd.

대표자	Mr. Teodor Zamfirov (Managing Director)
담당자	Mr. Georgiev (Commercial Manager)
전화	+359 2 983 96 49
팩스	+359 2 983 96 49
이메일	elta90@dir.bg
설립시기	1990
홈페이지	www.elta90.com
주소	Vranya str. 82-86, Banishora District, Sofia 1303, Bulgaria
업종	수입
주요 취급제품	진단기기
주요수입국	EU, Asia, USA
한국거래 경험 유무	있음
의사소통 언어	영어

VI. 미국

1 시장 동향

□ 품목 유망성

- 고혈압 위험이 높은 고령층 증가로 의료시설용 및 가정용 혈압 측정기 수요 확대
 - '10년 기준, 미국 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40.2%에 달하고 있으며 '15년에는 46.7%까지 확대될 전망
- 가정용 환자 모니터링 장비 시장이 빠르게 팽창
 - 기술발전으로 크기가 작고 사용법이 간단해 가정에서 다루기 편리한 제품들이 끊임없이 출시됨에 따라 시장규모 지속 성장
 - '10년 기준, 미국 가정용 환자 모니터링 장비시장 규모는 16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연평균 6.4% 증가해 22억 달러에 이를 전망
 - Freedonia(美 시장조사 전문기관)는 가정용 환자 모니터링 장비 중 특히, 혈압측정기 분야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
- 향후 견고한 시장 성장세 예상
 - 미국 환자 모니터링 장비시장은 '14년까지 연평균 7.7% 성장하여 시장 규모가 14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측
 - 분야별로는 가정용 의료장비 시장이 가장 높은 성장률(9.3%)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혈압 측정기의 경우, 연평균 8.8%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여 '14년에는 시장 규모가 9억 5,500만 달러에 달할 전망
 - 이 외에 종합병원 시장은 연평균 6.7%, 외래 진료시설 시장은 연평균 6.4%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

<미국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시장전망>

(단위 : U\$백만)

구분	2004	2009	2014	성장률
환자모니터링시스템	7,429	10,300	14,900	7.7%
가정용의료장비	2,749	4,167	6,500	9.3%
종합병원	2,730	3,580	4,945	6.7%
외래진료시설	1,095	1,447	1,970	6.4%
기타	855	1,106	1,485	6.1%

자료원 : The Freedonia Group, 주 : 시장규모는 현지 시장수요(Market Demand) 기준

□ 수입동향 및 정책

- (수입동향) 최근 3년간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여, '11년 기준, 1.9억 달러 수입
 - 국별로는 중국(50%), 멕시코(29%)가 전체 수입시장의 약 80%를 점유
 - * Philips Healthcare, GE Healthcare, Welch Allyn, Omron, ADC Medical 등이 OEM 방식으로 생산, 수입
 - 대한 수입은 '11년 기준 51만 달러로 미미하나, '10년 이후 수출액이 급증세

<미국 혈압측정기 수입 동향>

(단위 : U\$천, %)

순위	국가	'09	'10	'11
-	총계	130,005	177,786	186,284
1	중국	73,211	10,422	92,120
2	멕시코	39,624	52,237	54,629
3	베트남	7,840	10,888	14,281
4	독일	1,761	5,786	8,169
5	스웨덴	7	0	6,630
9	한국	0	196	513
-	기타	7,562	98,257	9,942

자료원 : World Trade Atlas(HS 9018.90.50)

- (수입정책) 무관세 적용, FDA 의료장비 시판전 신고(501K)가 보편적이거나, 병원용 혈압측정기의 경우 제품에 따라 FDA의 허가(Premarket Approval)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 또한, 일반적인 가정용 혈압 측정기는 FCC 인증 없이 통관이 가능하지만, 컴퓨터와 연결해 사용하는 제품은 FCC 인증이 요구되기도 함.

<FDA 및 FCC 인증 절차>

1. U.S.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인증절차

- ❶ 의료장비를 FDA가 구분한 Class 1, 2, 3 중 어디에 속하는지 선택
 - FDA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능 확인에 필요한 규제수준을 기반으로 일반규제 (Class1), 일반규제 및 특별규제 (Class2), 일반규제 및 시판전 허가(Class3)의 가지로 등급 구분
- ❷ 일반규제 (General Control): Class1, 2, 3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 공장시설 등록 (Form FDA2891) → 의료기기 리스트제출 (Form FDA 2892) → 501K(시판전 신고서) 제출 → FDA 심사 → 승인 → 시판
- ❸ 특별규제 (Special Control) : Class2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 FDA 심사에 사용자 모니터링 및 사용설명서 제작 등의 특별규제가 추가
- ❹ 시판전 허가(Premarket Approval) : Class3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 일반규제 외에 임상자료, 동물실험자료, 임상실험자료 및 공장시설에 대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심사가 요구

2.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인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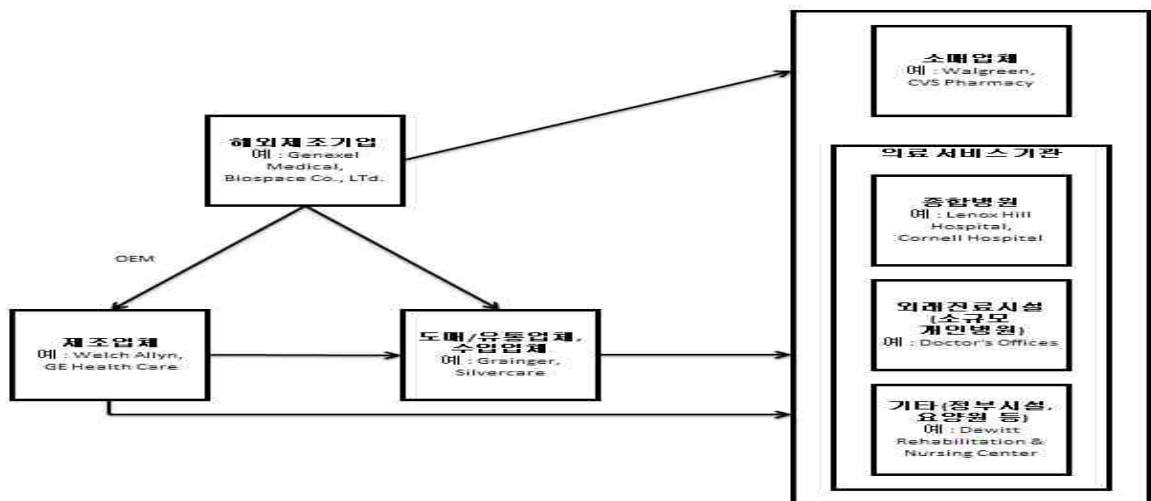
- ❶ 제품시험 신청 :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FCC에 시험을 신청
 - FCC Form 731, FCC에 등록된 시험소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 기술적인 자료 등
- ❷ 제품시험 실시
 - FCC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며, 시험기간은 제품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불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통상 2~3주 소요
- ❸ Grantee Code(FCC 인증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FCC는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제품별로 FCC ID를 부착토록 하고 있는데, 동 ID 발급을 위해 Grantee Code 발급이 필요하며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
- ❹ 인증신청 및 승인
 - 제품시험이 완료되고 FCC ID가 구성되면 인증신청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FCC에 인증 신청 → FCC는 인증신청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4~6주 이후 인증서 발급

2 시장 구조

□ 유통구조

- 미국 혈압 측정기 주요 유통시장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개로 구분 가능
 - 도매/유통업체 :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판매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해 소매업체나 의료 서비스 기관 등에 납품
 - 소매업체 : 주로 가정용 혈압 측정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 의료서비스 기관 : 병원용 혈압측정기의 경우 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설 등 의료 서비스 기관에서 구입해 환자에게 사용

<혈압 측정기 유통 구조>



□ 대상 공략군

- 병원용 혈압 측정기 보다는 가정용 제품 시장에 주력 할 필요
 - 전문 의료용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시장은 소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높은 편
 -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시장에서 가정용 의료기기 분야가 연평균 9.3%의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혈압 측정기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 병원용 혈압측정기는 제품의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미국 시장 신규 진출 시 OEM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

3 바이어 의견 조사

■ Hitrons Solutions Inc.

○ 바이어 정보

- 담당자 : Mr. Chunrae Cho (Executive Director)
- 전화번호 : +1-201-600-0053
- 이메일 : chun@hitronsinc.com
- 주소 : 120 Sylvan Ave Suite 301, Englewood Cliffs, NJ

○ 바이어 의견

- 현재 가장 잘 팔리는 가정용 혈압 측정기의 가격대는 \$30~\$40대 제품으로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제조된 상품
- 가정용 혈압 측정기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데, 한국 제품과 중국 제품의 도매 단가 차이는 \$1~\$2 정도로 크지 않지만 제품의 소비자 가격 자체가 높지 않아 작은 가격차도 제품 구매 결정시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단가를 낮춘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일반적으로 한국 제조업체들은 미국 시장의 제품 가격이 아시아 시장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혈압 측정기의 가격대는 일본 시장의 절반수준이므로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위해서 기대를 낮출 필요
- 미국은 약국 등 공공장소에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는 혈압 측정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코인 혈압측정기는 시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

☐ Silvercare

○ 바이어 정보

- 담당자 : Mr. Stanley Suh (President)
- 전화번호 : +1-718-359-5600
- 이메일 : stanleysuh@gmail.com
- 주소 : 150-05 Northern Blvd, Flushing, NY

○ 바이어 의견

- 과거 한국산 혈압 측정기가 미국 시장에 진출 시도를 했으나 대부분 실패했던 원인은 마케팅 파워와 제품에 대한 A/S가 취약했기 때문
- 현재 미국에서 잘 팔리는 혈압 측정기에 비해 한국 제품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기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점을 보완하고 마케팅에 대한 투자를 높인다면 미국 시장에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한국 제품들은 사양이 다양하지 않아 저가품에서부터 고급형까지 다양한 수요가 있는 미국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
- OEM 시장에서 한국 제조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
- 미국 혈압 측정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단점을 보완한다면 한국 제품도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

□ Park Surgical Co., Inc.

○ 바이어 정보

- 담당자 : Mr. Don Volcy (Purchasing Agent)
- 전화번호 : +1-718-436-9200
- 이메일 : parksurgical@aol.com
- 주소 : 5001 New Utrecht Ave. Brooklyn, NY

○ 바이어 의견

- 혈압 측정기와 같은 의료기기의 경우, 제품 신뢰도가 중요하므로 Welch Allyn, Omron, ADC Medical 등 유명 브랜드 제품을 취급
- 현재 한국제품은 취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제품 신뢰도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한국 업체를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
- 현재 미국 시장에서 혈압 측정기에 대한 수요는 가정용과 병원용 모두 높아지고 있어 미국 혈압 측정기 시장 전망은 밝은 것으로 예상
- 참고로 대미 진출을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 가입이 필수적

□ 참고사항

- 각 보험사별 정책에 따라, 혈압측정기 구매시 보험 적용여부가 결정되나, 혈압 관련 심각한 증상을 가진 환자가 아닌 경우 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 것이 보편적

VII. 파나마

1 시장 동향

□ 품목 유망성

- 파나마 혈압측정기 시장은 홈케어에 집중
 - 현지 유력 취급상에 따르면 파나마 혈압측정기 시장은 크게 병원용 전문기기, 외래환자용 기기, 홈케어용 기기로 대별
 - 병원용 장비의 경우 각종 생체신호를 감시하는 복합모니터를, 의원은 대부분 수은혈압계를 선호하고 있으며, 기타 외래환자용으로는 홀터식 장비가 종종 활용되기는 하나 실수요는 매우 적다는 것이 바이어들의 의견(연간 50개 내외)
 - 반면, 홈케어용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고소득층 증가로 그 저변을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는 상황

□ 수입동향 및 정책

- (수입동향) 최근 3년간 수입액이 연평균 20~30% 증가세 기록
 - 국별로는 미국산 수입이 50%로 주종을 이루며, 독일산(8%)이 뒤를 잇고 있음.
 - 대한 수입액은 5만 달러 미만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

<파나마 혈압측정기 수입 동향>

(단위 : US\$ 천)

순위	국가	'09	'10	'11
-	총계	13,951	16,713	22,046
1	미국	6,519	8,096	11,137
2	콜론 프리 존*	2,486	2,217	3,700
3	독일	1,821	1,678	1,715
4	중국	438	358	799
5	영국	96	98	754
23	한국	47	61	48
-	기타	2,544	4,205	3,893

자료원 : World Trade Atlas(HS Code 9018.90.90)

주 : Colon Free Zone은 남미와 캐리비언 지역으로 재화를 재수출하기 위한 무관세 항구지역(파나마 운하 근처에 위치)

○ (수입정책) 수입 관련정책 및 인증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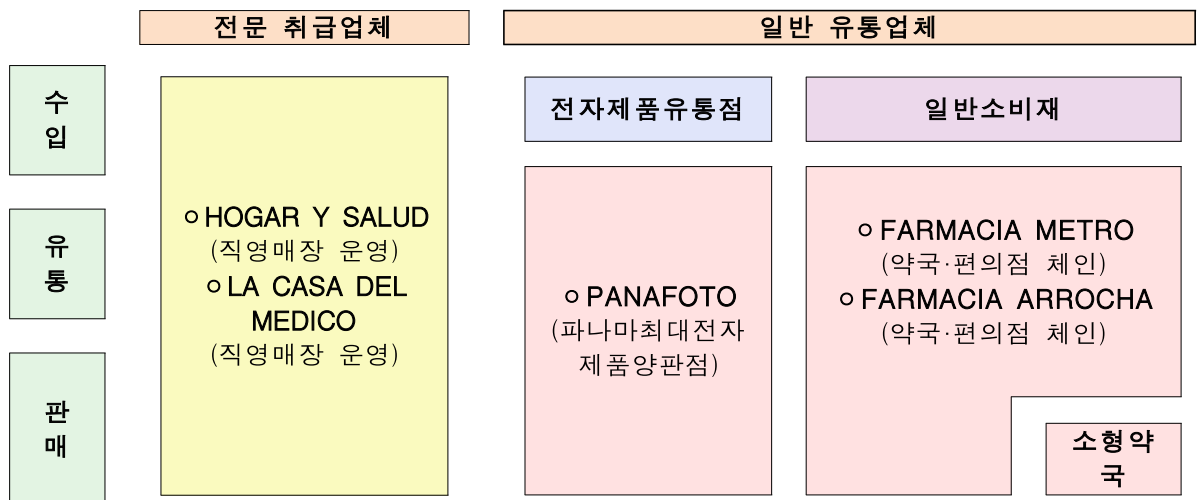
- 관세는 10%, 부가세는 7% 부과
- ‘혈압측정기’는 의료기기가 아닌 홈케어제품(또는 일반소비재)으로 등록되어 별도의 인증이 필요 없으며, 수입제한 조치도 없음.
- 의료기기로 간주되더라도 정부당국의 보건인증(Registro Sanitario)은 정부 입찰 참여 시에만 의무화

2 시장 구조

□ 유통구조

- 시장의 영세성 및 중남미 특유의 가족경영문화 영향으로, 소수의 대형 취급업체가 수입·유통·판매·사후관리를 모두 관장하는 ‘일괄 독점체제’가 두드러지며 따라서 유통구조가 매우 단순
- * 혈압측정기 유통업체는 5개사 정도로 압축되며, 의료기기 전문업체 외에도 전자제품양판점·약국체인 등 종합유통기업이 수입 및 유통·판매의 큰 축을 담당
- 경우에 따라 수입상이 동네약국에 소량 납품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극히 드문 경우

<혈압측정기 유통구조>



□ 주요 취급업체

상호명	취급브랜드 (부가세 별도 소비자가)	특 징
HOGAR Y SALUD	OMRON HEM 18(의사용, \$24.95) HEM 403(팔목형, \$34) - 주력제품(50%) HEM 7113(팔목형, \$75) HEM 631(손목형, \$68) - 주력제품(20%)	◦ 의료기기 전문 취급업체로, 5개 직영매장 운영 중 ◦ 연간 3,000대 판매
LA CASA DEL MEDICO	ADC ADC 6023(팔목형 \$130) ADC 6021(팔목형 \$90) ADC 6015(손목형 \$65)	◦ 의료기기 전문 취급업체로, 1개 직영매장 운영 중 ◦ 연간 100대 판매
PANAFOTO	OMRON HEM 4030(팔목형 \$24.95) HEM 7114(팔목형 \$39.95) HEM 6200(손목형 \$49.95) PANASONIC EW3006S(손목형, \$39.95) EWBU04W(팔목형, \$39.95) CITIZEN(재수출 전용)	◦ 파나마 최대 전자제품 양판점으로, 8개 매장 운영 중 ◦ 연간 1,500~2,000대 판매
FARMACIA ARROCHA	-	◦ 파나마 최대 약국·잡화점 체인으로, 15개 매장 운영 중
FARMACIA METRO	-	◦ 파나마 최대 약국·편의점 체인으로, 17개 매장 운영 중

자료원 : 파나마무역관 자체조사

□ 대상 공략군 분석

- 취급경험이 많은 바이어부터 공략
 - 홈케어 제품은 전문 의료기기업체에게도 여전히 생소한 제품인 만큼 취급을 꺼리기 쉬워, 취급경험이 많은 바이어를 발굴하여 공략하는 것이 좋음.
- 판매량 보다는 건실한 유통망 확보 여부 중요
 - 대량구매 자체가 불가능한 소형시장임을 감안, 바이어의 매출규모 보다는 탄탄한 유통망과 안정적 고객 확보 여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특히 콜론프리존 중개무역을 겸하는 바이어의 경우, 인근국 시장(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카리브도서국 등)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징검다리로 활용 가능

3 바이어 의견 조사

□ 수입수요 분석

- 신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나, 브랜드밸류와 가격경쟁력이 구매 관건
 -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 제품들의 높은 브랜드 밸류 및 가격 경쟁력이 가장 큰 장벽으로, 이제 막 시장진출을 노리는 한국산 제품은 매력적인 가격조건과 적극적인 제품홍보 노력이 필요

□ 한국제품 평가

-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양호하나 시장에 소개된 한국산 혈압측정기가 없고, 특히 생소한 중소기업 제품이라면, 기존 제품의 브랜드파워를 앞서기는 어렵다고 평가
- 새로운 기능이 탑재된 신개념 상품일 경우, 브랜드 밸류가 좀 밀리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일지라도 큰 관심

□ 접촉바이어 명단

- PANAFOTO ZONA LIBRE, S.A.

담당자	DAVID DHANANI	직위	SALES EXECUTIVE
연락처	+507 433-9658	Email	david@panafoto.com
Website	www.panafoto.com		
비고	· 현지 최대규모 전자제품 양판점의 콜론프리존 지점으로, 인근국 시장을 상대로 연간 10~11천대, 파나마 내수시장에는 1.5~2천대 판매 중 · 주요 취급브랜드 : CITIZEN(재수출), OMRON, PANASONIC 등 * 콜론프리존 매장에서는 CITIZEN 제품이 가장 큰 인기(연간 6천대) · 신개념 제품에 관심이 있으며, 제품테스트·가격조건 등을 검토할 의향이 있음(단, 이미 3개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어 당장 구매할 의사는 없음)		

○ LA CASA DEL MEDICO (BIOTECNOL, S.A.)

담당자	GUILLERMO UNGO	직위	SALES MANAGER
연락처	+507 207-6300	Email	gungo@casamedic.com.pa
Website	n/a		
비고	· 파나마 의료기기 판매량 2위 업체(도매, 정부입찰 등) · 특히 BIOTECNOL 자회사를 통해 홈케어 의료기기, 의료용품 등을 수입, 판매하고 있음. · 혈당측정기의 경우 ADC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연간 판매량은 100대 내외 · 신개념 제품에 관심		

○ HOGAR Y SALUD (MEDIEQUIPOS, S.A.)

담당자	CONRADO REYES	직위	BUSINESS LINE MANAGER
연락처	+507 270-1444	Email	creyes@hogarysalud.net
Website	www.hogarysalud.net (준비 중)		
비고	· 홈케어제품 전문 취급 도소매상으로 5개의 매장 운영 · 혈당측정기의 경우 Home Diagnostics社の 'True Read'제품군 취급 (연간 2,750개 판매) · 혈압측정기의 경우 Omron社 4개 모델을 취급(연간 3,000여대 판매) *그 중 베스트셀러는 전체 판매량의 50%를 차지하는 팔목형기기(HEM-403)이며, 손목형은 약 20% · 신개념 제품에 관심, 혈당측정기용 소모품(STRIP 등) 공급 가능 여부 문의		

□ 참고사항

- 가정용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되지 않음.

VIII. 중국

1 시장 동향

□ 품목 유망성

- 소득증가와 고령화 심화로 휴대용 의료기기 시장이 고속 성장 중으로, 그 중 전자혈압계 매출 비중이 높음.
- 조사기관 CCID(賽迪网)에 따르면 2008년 중국 휴대용 의료 전자기기 매출 규모는 127억1000만 위안이며 그 중 가정용 제품이 83억 위안(65.3%)
- 가정용 휴대 의료 전자기기 중 전자혈압계 매출액(31억7000만 위안)이 전체의 3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수입동향 및 정책

- (수입동향) '10년까지 수입이 증가해오다, '11년 들어 급감
- 국별로는 '10년까지 일본이 전체 수입액의 60%를 상회하였으나, '11년 들어 도미니카공화국으로부터 수입이 8%에서 25%로 약진하였고, 미국, 독일로 부터의 수입 비중도 괄목할만하게 증가
- 대한 수입은 5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

<중국 혈압측정기 수입 동향>

(단위 : 천 달러)

순위	국가	'09	'10	'11
-	총계	31,956	36,514	26,961
1	일본	19,719	23,564	7,962
2	도미니카공화국	1,701	2,748	6,845
3	미국	1,573	1,937	2,704
4	독일	922	1,551	2,147
5	중국	2,529	1,827	1,675
14	한국	202	108	53
-	기타	5,310	4,779	5,575

자료원 : 중국세관통계

주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중국산 제품이 수출된 후 재입국 된 경우(國貨夏進口)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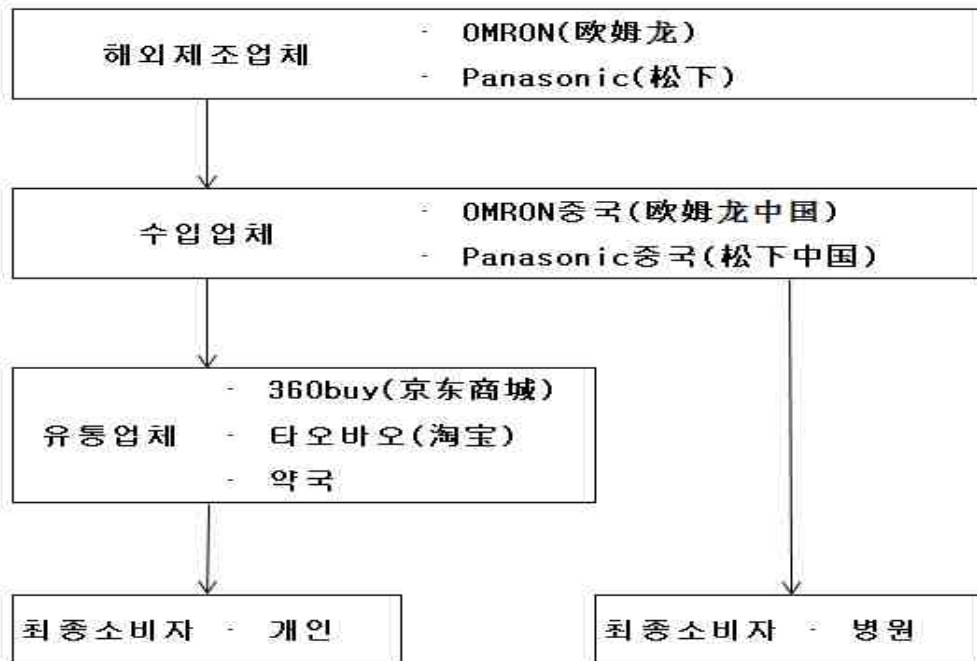
- (수입정책) 혈압측정기는 중국에서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医療器械監督管理條例)", "수입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進口医療器械檢驗監督管理辦法)"에 따라 수입 전 반드시 식품약품감독관리 부문으로부터 "수입의료기기등록증(進口医療器械登記証, SFDA)"을 발급받아야 함.
- 수입의료기기등록은 심사가 까다로워 허가 취득이 용이하지 않으며 심사기간은 보통 1년-14개월 소요
 - * 혈압측정기는 중국에서 GB3053-1993(血壓計和血壓表, 혈압계와 혈압표)을 적용
 - * 1대 당 4%의 관세율을 적용하며 증치세는 17%

2 시장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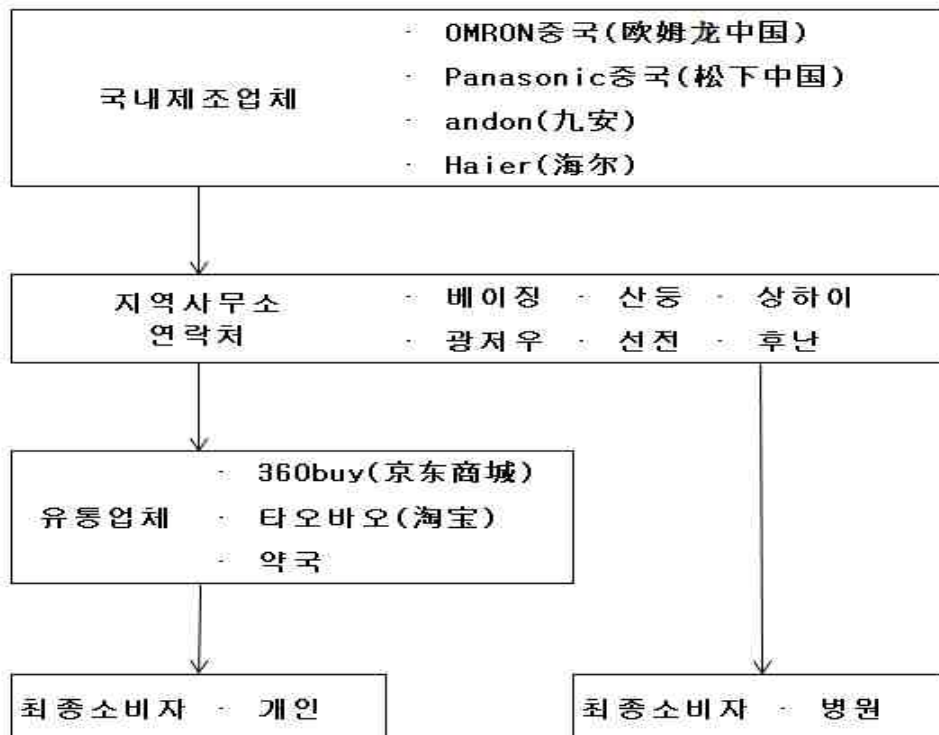
□ 유통구조 분석

- 일반 유통경로
 - 시중에서 유통되는 혈압측정기는 로컬제품 중심이며 일부 고가 혈압측정기는 수입제품
 - * OMRON(歐姆龍), Panasonic(松下) 등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외국 브랜드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입혈압측정기도 중국 내 법인을 통해 수입되는 경우가 많음.
 - 수입 혈압측정기는 일반적으로 수입업체→유통업체→최종 소비자와 같은 경로를 통해 유통
 - 로컬 생산한 혈압측정기는 일반적으로 생산업체→지역사무소/지역대리상→유통업체→최종 소비자와 같은 경로를 통해 유통

<수입산 혈압측정기 유통경로>



<국내산 혈압측정기 유통경로>



□ 대상 공략군 분석

- 중국 혈압측정기 시장은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 고가 혈압측정기는 주로 OMRON, Panasonic 등 글로벌 기업들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로컬브랜드는 저가 보급형 기기 시장을 점령
 - 우리 기업들은 가격을 글로벌 기업보다 낮추는 한편 로컬브랜드보다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 실력 있는 현지 업체와 제휴해 농촌시장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중국정부는 농촌 의료서비스 개혁을 위해 의료기기 보급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 중
 - 현지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농촌 시장 진출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음.

3 바이어 의견조사

□ 北京移聯友通信科技有限公司

- 바이어 개요
 - 인터뷰 대상 : 玄雪花(Miss. Xuan Xuehua)
 - 직위 : 매니저
 - 전화번호 : 86+10-8449-3981
 - 이메일 : xuehua@mobion.com.cn
 - 특기사항 : 한국제품을 선호, 현재 각종 의료기기 및 유아용품 등을 판매
- 수입수요 분석
 - 중국 온라인 쇼핑몰과 병원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가격대가 저렴하고(RMB 200위안 이하) 품질이 우수하며 결제조건이 좋은 해외업체 접촉 희망

- 현재 판매하고 있는 혈압측정기는 중국 00브랜드 제품으로 가격과 품질 면에서 양호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55% 금액만 먼저 선불하고 남은 금액은 판매 후 결제하는 조건으로 거래

* 해외제품을 취급하더라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기를 희망

- 의료기기의 각종 인허가가 복잡하기에 중국에서 인허가를 기취득한 제품을 선호하며 상담 가능 언어는 중국어

○ 한국제품 분석 및 개선점

- 한국제품의 품질이 좋은 것을 인정은 하지만 가격대가 중국산보다 훨씬 높은 상황
- 유럽제품보다도 비싼 것은 아무리 품질이 좋다하더라도 단가를 낮추지 않으면 중국 시장에서 영업이 힘들다고 함.

□ 北京雅典娜科技有限公司

○ 바이어 개요

- 인터뷰 대상 : 宋東弼(Daniel Song)
- 직위 : 이사장
- 전화번호 : 86-10-8477-5441
- 이메일 : Daniel@pharmamate.co.kr
- 특기사항 : 중국에서 한국산 의료기기 관련 시장조사, 인허가 대행 및 의료기기 관련 유통을 하는 업체

○ 수입수요 분석

- 한국제품에 대해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나 제품자체가 중국에서 선호하는 타입이라 할지라도 여러가지 인허가로 인해 중국에서 정상적인 판매에 애로

- 우선 수입의료기기등록(SFDA)을 취득하는데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고 비용이 3만5천~5만 위안 소요
- 인허가 취득업체, 중국 내 A/S 관리시스템이 가능한 업체를 선호하며 상담가능언어는 중국어와 한국어

○ 한국제품 분석 및 개선점

- 중국시장진출을 위한 선결조건인 인허가를 취득하는 게 가장 큰 과제
- 사전에 비용이 들더라도 현지에서 철저한 시장조사 진행 필요
- 가격이 낮은 중국산 제품과 품질이 좋은 유럽산 제품 등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생존하려면 브랜드이미지 및 품질, 가격 면에서 경쟁력 확보 필요
- 중국에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혹은 업무를 대행하여 진행할 업체 확보가 필요

□ 环球健友（北京）科技有限公司

○ 바이어 개요

- 인터뷰 인사 : 樊濱(Fan Bin)
- 직위: 총경리
- 전화번호 : 86-10-5166-8033
- 이메일 : bjjianyou@126.com
- 홈페이지 : www.bjjianyou.com
- 특기사항 : 국가체육총국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중국장애인복지부분에서 지정한 공급상이기도 하며 병원 등 다양한 유통망을 보유

○ 수입수요 분석

- 현재 중국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혈압측정기가 다양한바 국내산 제품도 수입제품에 못지않게 품질이 우수하기에 특정한 기능을 가진 제품, 가격경쟁력이 있는 제품 요망
- 정상적인 판매를 위해 필요한 중국 내 인허가 기취득 제품을 접촉하기를 희망하며 상담 가능 언어는 중국어

○ 한국제품 분석 및 개선점

- 한국과 의료기기 거래경험이 있지만 한국제품은 수출한 이후에 발생하는 A/S라든지 마케팅에 대한 협력 마인드가 부족
- 혈압측정기 같은 의료기기는 현재 여러 가정마다 한 개씩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중의 하나이기에 중국시장에서 수요가 적지 않은바 이에 대응하여 장기적 관점으로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

□ 참고사항

- 기본적으로는 약국에서는 구매하는 혈압측정기는 의료보험 적용불가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보험을 적용하기도 함.
- 최근 안후이성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면서 약국에서 혈압측정기를 구매할 때에도 의료보험을 적용
- 병원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

IX. 태국

1 시장 동향

□ 품목 유망성

- 매년 고혈압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태국 공중보건부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6이(1천만 명) 고혈압 환자

< 태국 고혈압환자 현황 >

구분	'08	'09	'10
입원환자(IPD) 수	494,809	780,629	859,583
사망자 수	2,463	2,295	2,478

자료원 : 태국 공중보건부

- 고혈압 환자 수 증가에 따라 혈압측정기에 대한 수요도 동반 상승, 특히 가정용 기기의 수요가 다대

* 매 가정 당 1명의 고혈압 환자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가정에서 혈압측정기를 비치하여 수시로 혈압을 측정

가정용 혈압측정기 (2,000 - 3,000 바트)	병원용 혈압측정기
	

□ 수입동향 및 정책

- (수입동향) 최근 3년간 수입이 증가하여, '11년에는 수입액이 1억 달러 돌파
 - 국별로는 '11년 기준, 미국(33%)과 일본(28%)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음.
 - 대한 수입은 360만 달러 수준으로 전체 수입액의 3.4%를 차지

<태국 혈압측정기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가	'10	'11	'12(1-5월)
-	전체	81.2	106.3	36.1
1	미국	29.7	34.9	13.2
2	일본	17.6	30.2	6.6
3	독일	8.2	9.1	3.7
4	중국	5.8	7.4	3.0
5	한국	2.5	3.6	1.8
-	기타	17.5	21.2	7.8

자료원 : 태국 상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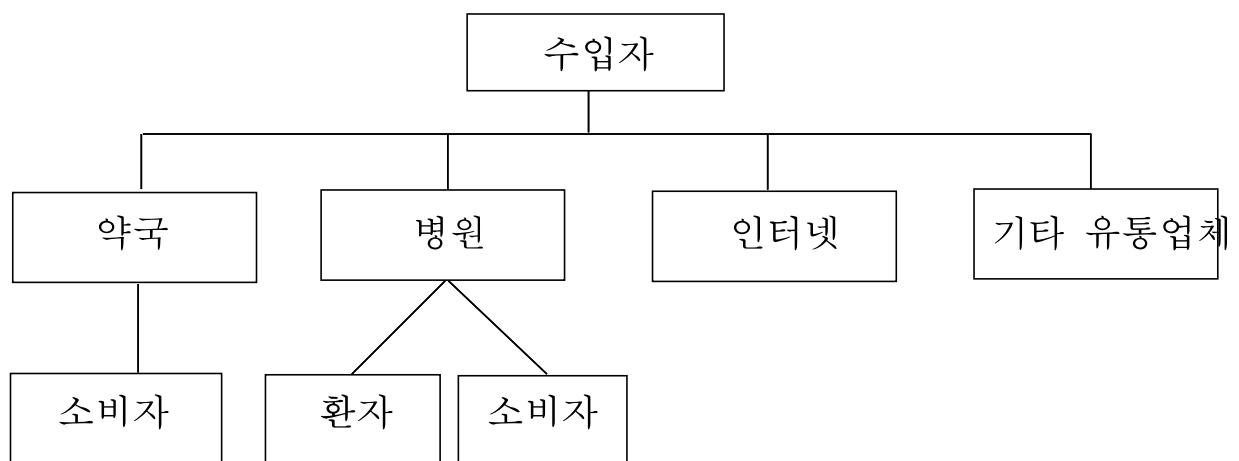
- (수입정책) 의료기기의 수입, 유통, 제조는 태국 식약청(FDA)의 사전 승인 필요
 - 태국 정부는 외국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수입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도 필수
 - 태국은 또한 중고 의료장비의 수입도 금하고 있음.
 - 한국산 혈압측정기를 태국으로 수출시 관세는 0%

2 시장구조

□ 유통구조

- B.L Hua & Co., Ltd, 2 B Marketing Co., Ltd, 그리고 DKSH (Thailand) Co., Ltd 등과 같은 제품 수입업체는 병원, 약국,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판매를 하거나 다른 유통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유통
- Bumrungrad International Hospital과 Phayathai Hospital 과 같은 병원은 병원용 혈압측정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한편 가정용 혈압측 정기를 환자들에게 판매
- 가정용 혈압측정기는 Pure Drug Store (Big C 슈퍼마켓의 자회사), First Drug Center 등과 같은 일반 약국, 인터넷 쇼핑몰, 백화점 등 다양한 경로로 소비자들에게 판매

<태국 혈압측정기 유통 구조>



자료원 : 무역관 자체조사

3 바이어 의견 조사

☐ Siam Medical Sale and Supply Co., Ltd

이름	Mr. Seree Apivikorn	직위	Sales Manager
전화	66-2-530-4068	이메일	siammedical@hotmail.com
참고사항	· J, H, B 사 등의 한국브랜드를 유통 · 한국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특별히 불만 사항이 없으나, 제품 가격이 비싼 편 · 병원에 납품하는 경우 병원과 유통업체간 관계가 중요 * 이 경우는 유통업체를 독점 에이전트로 지정하여 관계 지속 필요 ·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제품을 많이 판매하며 가격 프로모션도 실시		

☐ AMC Medical Supply Co., Ltd

이름	Ms. Uraivan Juthakorn	직위	Sales Manager
전화	66-2-980-1881	이메일	amcmedical118@gmail.com
참고사항	· J, H사 등의 한국브랜드를 유통 · 제품에 대한 불만은 없으며, 병원용의 경우 유럽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 브랜드는 가정용 제품에 초점을 둘 필요		

☐ 2 B Marketing Co., Ltd

이름	Ms. Orawan Maleemao	직위	Purchasing Officer
전화	66-86-378-3777	이메일	orawan@2bmarketing.net
참고사항	· 한국 H사 제품을 수입하여 약국, 홈페이지, 자회사 등을 통하여 태국시장에 유통 · 다수의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격, AS 서비스, 광고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함. · 병원과 약국은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는 구매를 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브랜드의 경우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유리		

☐ 참고사항

- 혈압측정기 구매시 의료수가 적용 불가(의료수가 적용대상은 의약품으로 한정)



작성자

◆ 헬싱키무역관	이지형 관장
◆ 소피아무역관	김명희 관장
◆ 뮌헨무역관	한상은 관장
◆ 스톡홀름무역관	조경진 과장
◆ 바르샤바무역관	임태형 과장
◆ 뉴욕무역관	고일훈 과장
◆ 베이징무역관	문은혜 과장
◆ 방콕무역관	박영선 차장
◆ 파나마무역관	이 훈 과장
◆ 선진시장팀	이정선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2-028

中企 수출유망품목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혈압측정기>

발 행 인 | 오 영 호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2년 8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2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새로운 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